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20.01.28.~2020.02.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수빅 홀리데이 빌라라는 풀 빌라에서 식사, 취침, 수업 등 전반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숙소와 수업 건물 사이에 수영장이 있었고, 수업 건물에는 식사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었습니다. 대학의 위치는 시내에서 조금 외진 곳에 있었으며, 도보로 걸어서 10~15분 정도 나가야 스타벅스가 있는 작은 시내에 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울러 FB(택시버스개념) 및 택시 등 교통수단을 통해 10분 정도 나가면 대형마트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학 및 숙소의 규모와 시설은 만족하였으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상당히 만족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존에 영어를 잘하거나 못하여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는 데 충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로 현지에서 영어를 적용해보는 시간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첫 주에 레벨 테스트를 거쳐 그룹을 나뉘게 되고, 그룹 별로 토익스피킹, MMC 등 나뉘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1 수업 방식은 주로 교재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재를 진행하면서 일상대화와 같은 자유주제를 통해 영어회화 감각을 기르기도 합니다. 주간 수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분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1:1 수업 4시간, 그룹 수업 4시간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적응하게 되고 회화 위주 수업이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아울러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휘 및 문법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교정을 받게 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는 데 적절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4주간 어학연수는 짧다고 느껴지나, 노력한 만큼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드트립	도착한 당일의 Activity는 시티 투어입니다. 현지 선생님과 함께 시내로 나가 환전을 하고, 유심구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

	품을 사러 나가게 되며 생활 초반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하게 됩니다. 다른 Activity 활동으로는 요트투어, 워터파크, 기념관 방문, 체육대회, 영화시청, get to know 등 활동적인 Activit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은 외부로 나가는 단체 활동이 있으며, 평일에 한 번씩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습니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에는 Happy Friday 기념으로 다양한 컨셉을 추구하는 의상 Festival 활동이 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 기준 4주간 있으면서 하루만 비가 왔고, 다른 날들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낮에는 엄청 뜨겁지만 5시 이후부터는 서늘해지기 시작하였고, 9~10시쯤 되면 쌀쌀할 정도로 기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가방에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여 입고 다녔습니다. 아울러 더운 날씨 관계로 실내에는 에어컨 시설 때문에 추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근히 감기에 걸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짧은 옷만 챙기는 것보단, 가벼운 겉옷 또는 바람막이를 챙길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	기본적으로 수빅은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내에 모든 마트 및 상점마다 경찰이 있고, Security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치안에 관련하여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개인 소지품과 관련하여서 주의해야 합니다.
숙소	보통 2~3인이 한 개의 방을 사용하게 되고, 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해결해주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House keeping을 하여 청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동남아 지역이라 그런지 개미, 도마뱀 등 다양한 벌레를 접할 수 있으나 생활에 큰 불편이 갈 정도로 많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v) 외부식당 (v) 기타 ( ) 주로 아침·점심은 학교식당에서 먹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녁도 학교식당을 이용하고 외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팁이지만, 학교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외출하여 노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서 먹으면 최소 1시간은 걸리고 돈도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이 아닌 이상 학교식당을 이용하고 외출하였습니다. 학교식당은 주로 한식으로 나오며,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나오지 않아서 개인 기호에 맞춰 김·고추장·라면 등을 챙겨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식당은 현지식 음식도 있으나 주로 양식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맛이 많이 짜거나 다르지는 않습니다. 매일 햄버거 피자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의 맛입니다.
교통	숙소 주변에는 따로 버스 정거장이 없으며, 보통 외출할 때 도보를 통해 외출하거나 FB(택시개념버스) 또는 택시를 불러 이동하였습니다. 주로 시내에서는 트라이시클, 지프니, FB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며 인당 평균 15~30페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개인부담금	690,000	출국 전 사전 납부
보험료	37,240	KB손해보험
개인 경비	550,000	500$
합계	1,277,240	

5. 출국 전 준비사항

기본적으로 장기 여행을 생각하면서 빠진 물품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샴푸나 휴지와 같은 개인 생필품은 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돌아올 때 짐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출국하실 때 캐리어 절반 정도는 남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해진 수화물 kg가 있어, 귀국하실 때 귀찮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인마트가 현지에 있지만, 선생님들의 선물을 미리 한국에서 사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경비는 1주에 100달러로 생각하고 400달러 환전하였지만, 정말 평균으로 소비하게 되지 않는 이상 많은 달러를 환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물 및 기념품을 구입하다보면, 마지막 주에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업 첫 주에는 보통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것을 미리 영어로 번역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좋은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만족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4주라는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갈 정도로 현지에 금방 적응하게 되었고, 좋은 친구들을 만들고 귀국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 선생님들과도 좋은 관계가 되어 앞으로도 SNS 및 메신저를 통해 계속 연락할 것 같습니다. 사실 4주간의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회화 능력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향후 어떠한 것들 모두 잘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4주라는 시간을 필리핀 어학연수에 투자하여 어떤 것보다 값진 경험을 얻게 되었고, 다른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인생에 있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요트 투어		수빅 베이
워터파크		점호

졸업공연		졸업식